

# 포장까지 수수료 댈 배민...광주형 공공배달앱 대안 부상

포장에도 6.8% 수수료... 일부 점주 “포장 서비스 해지” 움직임

광주 ‘위메프오’ 광고비 등 없이 중개 수수료 2.0~2.5% 불과

배달의민족이 포장 주문에도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광주형 공공배달앱이 실질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시가 지원하는 ‘광주형 공공배달앱’은 무료 포장 수수료와 낮은 중개수수료 등으로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지역경제 기반형 성공 모델로 언급할 정도로 호평을 받고 있다. 14일 광주시와 배달의민족(운영사 ㈜우아한형제들) 등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이날부터 포장 주

문에 대해서도 중개 수수료 6.8%(부가세 별도)를 부과하고 있다. 기존 배달 중개 수수료(9.8%)와 결제 수수료(약 3.3%, 부가세 포함)에 더해, 포장 주문에도 일정 비율의 수수료가 적용되는 것이다. 포장 주문은 고객이 직접 매장을 방문해 음식을 수령하는 구조로, 배달 인력이 필요 없는 수익성 높은 주문 방식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포장 주문마저 수수료 부과 대상이 되면서, 일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배달 의민족 포장 기능을 해지하거나 타 플랫폼으로 전

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최근 들어 자사 앱이나 네이버 스마트주문으로 포장 주문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배민 포장 기능을 해지한 점주도 상당수에 이른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촌치킨, 맘스터치, BBQ 등 일부 브랜드 가맹점은 포장 주문 기능을 중단했거나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민간 배달앱의 수수료 체계에 대한 불만이 확산하면서, 광주시의 광주형 공공배달앱이 주목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공공배달앱인 ‘위메프오’와 ‘뽕겨요’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공공배달앱의 중개 수수료는 평균 2.0~2.5% 수준이며, 광고비도 별도로 받지 않는다. 특히 위메프오는 포장 주문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3월 기준, 공공배달앱 가맹점 수는 1만4916곳으로 출범 초기(1200곳) 대비 12배 이상 증가했다. 누적 주문 건수는 179만 건, 누적 매출은 444억 원에 달하며, 지역 배달시장 점유율도 17.3%에 이른다. 특히 광주형 공공배달앱은 배달 수수료 절감을 넘어서 초기 입점 컨설팅, 정산·세무 지원, 고령 자영업자 대상 디지털 교육 등 실질적인 경영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김상진 광주시 경제정책과 주무관은 “광주시는 공공배달앱을 통해 낮은 수수료와 소비 촉진 프로

모션을 병행하고 있다”며 “배달 수수료 인상 흐름에도 기존 수수료를 유지하며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성공적인 공공배달앱이 장기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관계자는 “중소 자영업자는 플랫폼 수수료 협상력이 낮고, 지자체 단독 운영에는 재정적 한계가 있는 만큼 국비 지원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도 현재 광주형 공공배달앱을 전국 확산 가능한 성공 사례로 평가하고, 플랫폼 공정화 법안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의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광주상의 ‘미래 내일 일 경험’ 사전 직무 교육 참여하세요

베스트인과 인턴 지원 나서

16일까지 교육후 20주 현장 실습

광주상공회의소는 “베스트인 광주지사와 ‘2025년 미래 내일 일 경험(인턴형)’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업은 구직 준비 청년이 기업에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상의는 미래 내일 일 경험 호남권 지원센터로 선정돼 운영 기관을 지원하고 있으며 베스트인 광주지사는 광주지역 인턴형 운영 기관으로 참여해 기업과 청년 간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사전 직무 교육을 받은 후 인턴형 일 경험에 참여할 수 있다. 16일까지 진행되는 인턴형 사전 직무 교육에서는 기초 직무 교육은 물론 직무 심화 교육도 받을 수 있다. 광주상의는 사전 직무 교육 수료자에 한해 오는 21일부터 12주~20주간 인턴형 일 경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참여 기업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신용



광주지역 구직 청년들이 14일 ‘2025년 미래 내일 일 경험(인턴형)’ 사전 직무 교육에 참석해 강의를 듣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 제공>

보증재단, 금호익스프레스(주), (재)CBS, 보훈공단 광주보훈요양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인구보건복지협회대전충남지회 등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에게는 1일 5시간 근무 시 140만원(4주 단위)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참여

기업에게는 4주 기준 1인당 20만원의 기업 지원금과 15만원의 멘토 수당이 각각 지급된다.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래내일 일 경험 호남권지원센터(062-350-5896) 또는 베스트인 광주지사(062-716-3239)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덩치 큰 광주·전남 상장사들 지난해 수익성 개선 선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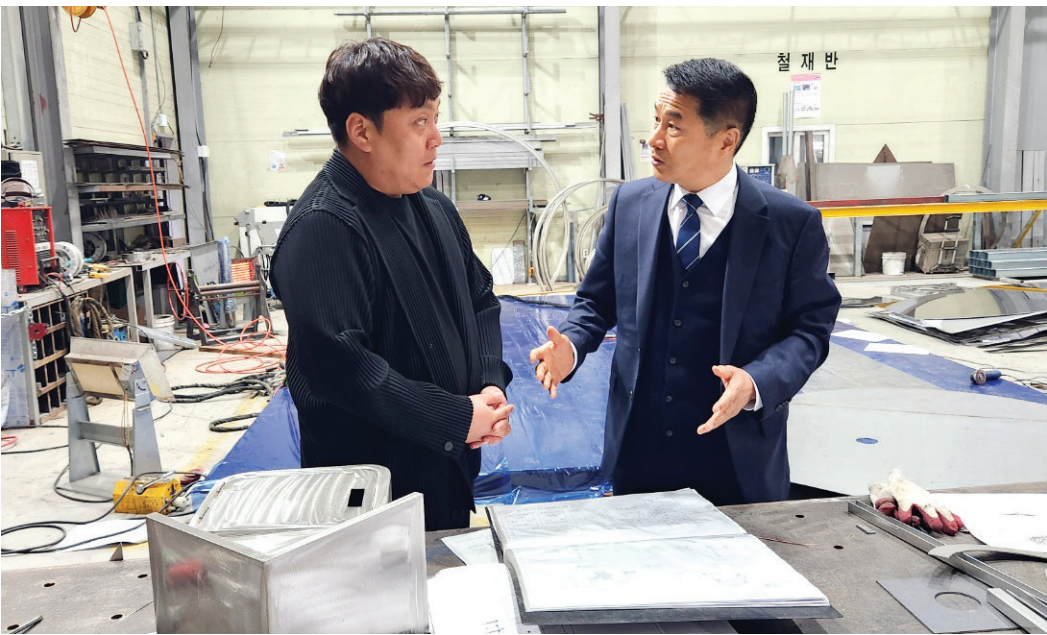
한전, 지역 최대 매출 비중 90%

대부분 기업 영업이익 흑자 전환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실적은 전년 대비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는 지역 최대 규모 기업인 한전의 흑자전환으로 지역 상장법인들의 영업이익, 순이익 등이 흑자전환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적자 폭을 줄이면서 지역 상장사들의 수익성이 향상됐다. 한국거래소 광주혁신성장센터는 14일 광주·전남 소재 상장법인 38개사 중 32개사(코스피 12사·코스닥 20사)를 대상으로 실적을 조사하고, ‘광주·전남 12월 결산법인, 2024사업연도 결산실적’을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상장법인 32개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101조3764억원으로 전년(95조3868억원) 대비 5조9896억원(6.3%) 증가했다. 지역 상장사들은 매출 증가는 물론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등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 광주·전남 상장사들은 2023년 5조9652억원 영업손실, 2조9480억원 순적자를 봤지만, 지난해에는 3조7843억원의 영업이익, 1조2151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다. 전반적인 수익성 개선은 한국전력공사(한전)이 견인했다. 광주·전남 상장사 전체 매출의 90.4%를 차지하는 한전이 지난해 3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장윤영 기자 zzang@

한전 외에도 지역 상장사들의 실적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전을 제외한 상장사들의 전체 매출액은 9조7299억원으로 전년(9조5612억원) 대비 1686억원(1.8%) 증가했다. 또 영업이익 6177억원, 순이익 3858억원으로 각각 1년전보다 14.7%, 28.1%씩 늘었다. 시장별로는 지역 코스피 상장사들의 매출이 100조6021억원으로 전년에 견줘 6.39%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각각 3조8056억원, 1조2604억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광주·전남 상장사 중 17개 기업은 흑자를 기록했고, 15개 기업은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한전(829억원), 남화토건(68억원), 대우에이텍(5억원) 등 5개 기업은 2023년 적자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흑자전환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광주조달청 중소기업 찾아

생산현장 점검 목소리 청취

광주지방조달청은 “민생현장 소통을 위해 담양 무정농공단지에 있는 지역 유망 중소기업 ‘휴안주식회사’를 찾아 생산현장을 점검하고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 광주시 유망 중소기업(자립형) 선정업체인 휴안주식회사는 품질경영인중 시스템 등 검증된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디자인형 울타리, 옥외용 벤치, 그늘막, 조정시설물 등을 생산·납품하고 있다. 김우환 광주지방조달청장은 “지속적인 현장 소통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공공조달길잡이 서비스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대선 50여일 앞두고 정치인 테마주 급등락

희비 엇갈려...투자 신중해야

6·3 대선을 50일여일 앞두고 14일 유력 정치인 관련 정치테마주의 희비가 엇갈렸다.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일부 정치인 관련주가 급락하는가 하면, 대선 후보 관련 종목들은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 주말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14일 관련 종목 주가가 일제히 급락했다. 반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공식 일정으로 스타트업 퓨리오사SI를 방문했다는 소식에 퓨리오사SI의 초기 투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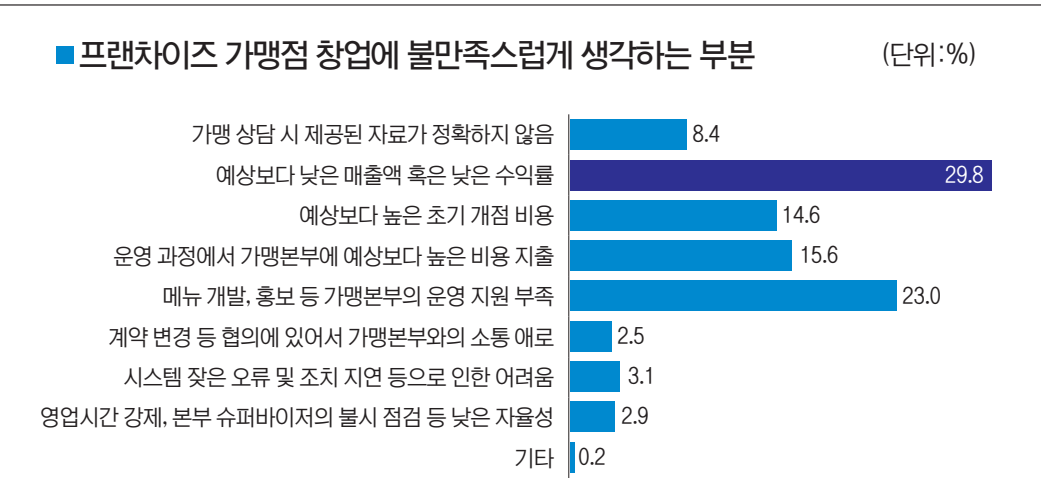
인DSC인베스트먼트(29.98%), TS인베스트먼트(29.97%) 등이 일제히 상한가에 장을 마쳤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대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3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시공테크(14.33%) 등 관련 종목이 급등세를 탔다.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정치인 관련 테마주는 변동성이 큰 만큼 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연합뉴스

## 광주디자인진흥원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지원

28일부터 선착순 상시 접수

광주디자인진흥원은 “2025 광주산업화디자인 프로젝트 중 하나로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소재 제조기업 및 디자인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한 것으로, 광주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경쟁력을 갖춘 지역 기업 작품들의 국내외 디자인 공모전 출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본사를 둔 제조기업 및 디자인기업이며,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이

메일(r\_pine@gdc.or.kr)을 통해 선착순으로 상시 접수를 받는다. 신청은 사업 예산 소진 때까지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GD’, ‘Red Dot’, ‘iF’, ‘IDEA’, ‘PIN UP’, ‘CES’ 등 국내외 주요 디자인 공모전 출품 지원과 출품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의 기술 자문 제공 등이 있다. 김용모 광주디자인진흥원 원장은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디자인 공모전 출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호남·제주 프랜차이즈 운영자 37% “가맹본부 메뉴개발·홍보 지원 부족”

투자금 회수 절반에도 못 미쳐

호남·제주지역 프랜차이즈 운영자 10명 중 3명 이상이 가맹 본부의 운영 지원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가맹점 실태 조사’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에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 호남·제주권 37.3%는 ‘메뉴 개발, 홍보 등 가맹 본부의 운영 지원이 부족하다’고 했다. 최근 3년간 불공정 거래를 겪은 사례도 절반이 넘었다. 호남·제주권 프랜차이즈 운영자 중 54.5%는 ‘할인 판매 금지 등 판매 가격 구속(통제)’을 경험했으며, 45.5%는 ‘계약 변경에 대한 불응 시 불이익 암시’ 등을 겪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불공정 거래 경험 비율은 17.7%였으며 판매 가격 구속(37.4%), 원자재 등 구입 강제(33%), 계약 변경 불응 시 불이익 암시(25.3%) 등의 순이었다. 응답 업체 중 투자금을 회수한 업체는 49.6%로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회수하더라

도 평균 31.4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금 회수가 진행 중이라고 응답한 운영자는 35.4%였다. 또 가맹 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상생을 위해 가맹 본부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 트렌드 분석을 통한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30.2%)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등으로부터 가맹점 사업자 권익 보호(18.1%) ▲적정한 수준의 차액가맹금 설정(14.2%)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추문갑 중소기업연합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프랜차이즈 사업은 시장에서 검증된 사업자와 신규 창업자 간 멘토·멘티와 같은 사업 모델로 자발적 상생 문화의 정착이 중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라도 상생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정기적인 가맹 계약 실태 점검 등 상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가맹점 514개사(호남·제주 59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4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됐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환율, 1420원대로 급락... 닉 달 만에 최저

원/달러 환율이 달러 약세 영향에 1420원대로 내려앉았다.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25.8원 하락한 1424.1원으로 집계됐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6일(1419.2원) 이후 닉 달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1.9원 내린 1428.0원으로 출발했다. 이후 1420.9원에서 1432.7원까지 뛰었다가 1420원대 중반에서 횡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약달러 흐름이 강해졌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

러인덱스는 지난 11일 99.00까지 급락한 뒤 소폭 반등했으나, 99.25로 여전히 100선을 밑돌고 있다. /연합뉴스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
|----------------|---------|----------|
| ▲ 코스피          | 2455.89 | (+23.17) |
| ▲ 코스닥          | 708.98  | (+13.39) |
| ↓ 금리 (국고채 39년) | 2.408   | (-0.003) |
| ↓ 환율 (USD)     | 1420.00 | (-29.90) |
| 〈오후 5시 10분 기준〉 |         |          |